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학, 개벽사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 호 연구*

차혜영**

〈차 례〉

1. 문제제기
2. ‘조선의 자랑’과 조선표상의 정치학
3. 1920년대 중반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대표성 경쟁과 자치론
4. 결론-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

[국문초록]

본고는 『별건곤』 1928년 ‘조선의 자랑’호의 조선표상의 정치학에서 “근대학지를 승인하기 → 문화(과거)를 정당화하기 → 현재(미래)의 권리를 상상하기”의 문법을 갖고 있으며 이 구도 속에서 문화, 과거, 조선이 핵심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 담론분석을 통해 2장에서 1. 과거·조선(특수)를 ‘근대적 知(보편)’의 체계로 질서화·범주화하는 방식, 2.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를 경계짓는 방식, 3. 우리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통해 재산권을 유추하는 방식, 4. 우리의 다양성의 범위와 대표성을 표상하는 담론정치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별건곤』 ‘조선의 자랑호’ 기획에서 표상된 ‘조선-공통의 우리’는, 진보하는 시간, 미래로의 시간 속에 과거-현재-미래로의 발전론적 연속체 속에 자기를 준거시키고, 과거로부터 주어진 문화적 정체성을 근대 발전론적 주체가 갖는 재산권으로 전유하는 담론전략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 발전론적 주체가 그 문화적 권리를 근거로 부재하는 국가의 주권적 정당성을 상상해내는 표상의 정치학과 동전의 양면으로 함께 갖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런 권리(재산권과 주권)의 근거는 ‘제국의 근대지·보편의 학지’임을 자신의 문화적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2-2012S1A5B8A03034081)로, 2013년 6월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국제 심포지움을 통해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학과

정당성과 자본주의적 소유권으로 해석해내는 그들의 역동적인 전유의 정치학도 살펴보았다.

이는 1920년대 이전, 즉 1차 대전 이전 문명론이나 사회진화론적인 시간 따라잡기를 통해 자기를 세계 발전의 시간표 끝자락에 두는 사고방식과도 다르고, 1930년대 이후, ‘자기’를 비자본주의 비근대적인 정신적 상징이나 이미지에 두는 단군담론, 로컬리티로서의 조선적인 것, 여성적 심상으로서의 조선적인 것에도 다른 지점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역동적인 언표적 좌표계의 단절과 전환의 전략은, 동시에 1925~1928년 식민지 조선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미디어 기획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또다른 정치학이 관철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1925년, 1928년 자치론이 처음 접화된 직후, 그리고 두 번째 자치론이 재접화된 직후~신간회에 참여했던 시기로서, 조선 사회 담론장에서 통일전선, 연합, 대동단결이 화두가 된 시점이다. 자치론과 『별건곤』 조선의 자랑호를 병치해서 해석한 결과, 분열의 가시화, 통합이 시대의 이젠다가 된 시점에서, 이들은 조선의 문화적 고유성과 문화적 독립성, 그리고 당대 그 시점에서 조선인이 가진 재산목록, 그리고 그 재산의 진정한 소유주로서 품성을 조선적 자랑으로 설득하는 표상의 정치학, 담론적 정치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별건곤, 조선의 자랑, 1920년대 증반, 표상의 정치학, 문화적 권리, 자치론, 보편적 근대지, 시간적 연속체, 비교와 평등, 조선산 재산목록.

1. 문제제기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쉽게 떠올리는 김치나 온돌, 청명한 기후 같은 ‘상식적 이미지’는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이런 대중적 공통감과 별도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혹은 금속활자처럼 비교적 실증적 증거를 갖는 자랑거리들, 또는 단군이나 금강산 같은 ‘한국적인 것의 원형적 상징이나 기원’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 것’으로 뭉뚱그려지는 ‘우리 것의 감각’ 혹은 ‘우리 것의 심상적 경계와 공통지(知)’는 언제쯤 어떻게,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진 것일까?

이 한국적인 것, 식민지 시대의 표현으로 ‘조선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문화에 대한 긍정의 표상들은,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의 창안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가능한 ‘민족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의 상호보증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다. 구체적으로 한일합방 이전의 신채호나 박은식 등의 자강론 계열의 민족주의인식이나, 1910년대 1920년대 개별적으로 수행된 유학생 출신 조선학자들인 안확, 최남선, 이병기, 이윤재, 문일평, 손진태 등의 조선학 연구, 그리고 이들의 조선학 연구에대한 다양한 역사

적 연구와 사상사적 평가가 진행된 바 있다. 그리고 1930년대 후반 조선학운동이
나, 조선적인 것의 붐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축적물을 갖고 있다. 이런 국내의 실증
적 연구 외에 방법론적으로, 피식민지에서 민족주의 혹은 민족에 관한 표상(지식)
이 만들어지는 국면에 대해서도 적잖은 논의가 전개되어온 바 있다. 베네딕트 앤더
슨의 경우, 피식민지 민족주의가 고유하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신문·소설·잡
지라는 근대 인쇄미디어를 통해 ‘창안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주요
근원 혹은 통로가 주로 지배자의 센서스, 지도, 박물관과 같은 지배를 위한 근대
지식 시스템임을 논한 바 있다.¹⁾ 프라센지트 두아라는 주권과 순수의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적 발전의 기획과 민족적 ‘순수의 기원’을 설정하는 기획 자체가 국민국가
적 주권을 구성하는 쌍임을 논한 바 있다. 특히 이런 주권과 순수의 아이디어는
서구에서 식민지로 지구적으로 순환하는 아이디어임을 논한 바 있다.²⁾ 한나 아렌
트 역시 제국주의가 강대해질수록 반제국주의를 만들어내는 아이러니를, 인도의
포스트 콜로니얼 연구가 파르타 차테르지 역시 피지배자의 민족주의 혹은 민족국
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역사철학적 시간의식과 상상력이 제국이 선물한 것임을, 그
래서 피식민지인은 제국이 준 선물로, 그것을 무기로 제국을 공격하는 매우 난감한
지위에 있음을 논한 바 있다.³⁾ 대부분 근대성의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후발 근대
국가의 주체구성이 자본주의적 발전지향적 차원과 동시에 피식민지인으로서의 반
제국주의적 차원을 동시에 보유할 수밖에 없는 양가성을 천착한 사유들이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근대를 지향하면서 비근대(반근대)를 자원화함으로
써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피식민지인의 주체구성방식의 이런 특징이, 미시적
국면에서 피식민지 주체가 민족주의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들어
냈는가에 대해 그다지 상세히 말해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우,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강조되었고, 식민지 지배시기 전반을 저류했던 문명개화적
민족주의와 1930년대 후반의 로컬리티로서의 조선적인 것을 강조하는 조선학, 그리
고 본고에서 취급하고자 하는 1920년대 중후반의 ‘조선의 자량의 기획’ 등은 구체적

1)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나남).

2) 프라센지트 두아라,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나남, 2008).

3) 로절린드 C. 모리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파르타 차테르지, 리투 비를라, 드루실라 코
넬,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그린비, 2013).

으로 다른 정치적 상황, 비전, 논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⁴⁾ 실제로 개화기 이래 문명개화의 강박 아래 조선의 뒤처짐·부끄러움을 중심으로 논의된 ‘조선’에 대한 계몽적 담론이, 192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중잡지를 통해, 갑자기 긍정의 기획으로 변모한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 글은 개벽사의 잡지가 기획한 일련의 ‘조선의 자랑 특집담론’을 통해 이 지점을 검토하고자 한다.⁵⁾ 필자의 이전 연구에서 살펴본 개벽사 첫 번째 특집(『개벽』 1925년, 6주년 기념호)은 기존의 조선부정의 담론에서 조선긍정의 담론으로 전환을 시도했었던 것이고, 여기서 살펴보려는 『별건곤』(1928년 5월, 12·13호 합본호 ‘조선의 자랑호’)은 조선의 자랑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치밀한 기획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조선의 자랑’이라는 기획은 『개벽』(1925년)에서 시도하고, 3년 후 『별건곤』(1928)이 총망라된 종합적 기획을 실현하고, 다시 1년 후 『어린이』(1929)에서 아동용으로 윤색·선택되어 제시된다. 20년대 중후반, 특히 1925년과 1928년, 개벽사의 대표적인 3대 잡지는 집중적으로 당대 식민지 조선의 대부분의 문필가들을 동원해 조선의 자랑이라는 조선표상을 주도해낸 것이다.

이 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별건곤』 1928년 특집이다. 이 특집의 기획에 대해 권두언에서 ‘독자제군! 그러나 우리가 이때까지 측면으로 우리의 短點만을 적발해 온 대신 한번쯤은 우리의 美點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長處를 집어내어 스스로 길러가질 바를 알고 스스로 조흔 바를 간직하게 하는 동시에 넘어 까부러지지만 하는 心情에 조흔 의미의 自尊, 自負의 心을느르켜 보는 것도 전혀 無意義한 일이

4)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이론들은 지식의 생산(식민지 학, 조선학, 조선지식, 조선조사...)에 있어서 능동적 생산자의 지위를 제국·지배자에 할당하고, 피식민지인을 그 지식을 무기로 혹은 선물로 받아 사용하는(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소비자로 할당하는 지식의 생산·소비 주체의 이분법이 전제되어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5) 기존 연구에서 이 ‘조선의 자랑’기획이 다뤄진 것은 3개이다. 이경돈, 『1920년대 민족의식의 전환과 미디어의 역할』, 『사람』 23호(2005. 6); 家永祐子, 『『개벽』과 『별건곤』을 통해 본 한국인의 한국자랑』, 『인문과학연구』(2012); 차혜영, 『‘학교’에서 ‘시장’으로의 전환(1) - 1920년대 중반 『개벽』의 ‘조선의 자랑’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내적 전환 연구 -』, 『한국언어문화』 36(2008.8). 이경돈은 한국근대에서 민족담론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동명』과 『개벽』 등 1922년 이후 민족을 가시화하는 담론이 등장했다는 것의 사례로 언급하고, 家永祐子は 『개벽』,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에서 취급한 자랑의 목록을 확인하면서, 그것이 현재 한류의 대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필자의 이전 연구에서는 1925년도 첫 번째 특집을 대상으로, 이전까지의 부정과 개조의 대상이었던 ‘조선’이 ‘자랑’으로 전환된 것의 의미함에 대해, “문명개화 시간적 따라잡기로부터 다 양성 세계감각으로의 전환”으로 특징짓고, 미디어 기획의 차원에서 지식인 필자들의 글과 인터뷰 기획필자의 방식을 대비·분석했다.

안일까 하여 이에 朝鮮 자랑號를 짜으려 한 것입니다.”⁶⁾ 라고 기획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총 94개의 기사로 이루어진 특집호는 동원된 필자, 찾아낸 자랑거리의 다양성에서 잡다할 만큼 무질서한 백화점식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에 당위적 조선 앞의 필요성, 자부심 고취의 필요성만을 강조한 권두언만으로는 그 의미맥락을 짐작하기 힘들다. 조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곳에 모아 놓은 이 잡다성 때문에 이 당위적 기획 의도는 어울리지 않는 기괴함을 보여주기도 한다.⁷⁾

개벽사는 대체 왜 이런 특집을, 공들여 기획하고 대표 잡지가 바뀌는데도, 심지어 『어린이』 잡지에 윤색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 본고는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결국, 통합된 조선의 표상을 통해 집단적 자기의 정체성의 이미지를 계획하고, 그것을 당대 다양하게 흩어진 담론주체들을 망라하면서 통합하는 방식으로 연출한-통합의 표상과 표상의 통합으로 ‘조선은 이러하다’를 만들어낸 방식을, 이 시기 만든 주체, 만들어낸 방식 등을 통해 읽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표상이 최초로 대중표상으로 종합된 국면에 대해 독해하고자 한다. 이를 2장에서 텍스트의 담론 분석으로 접근하고, 3장에서 이런 텍스트가 생산된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지의 당대 정치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2. ‘조선의 자랑’과 조선표상의 정치학

이 잡지의 특집을 일별하면, 온돌이나 흰옷 김치 따위를 자랑거리라고 서술할 때, 한편에서는 기묘하게 지금 현재 한류나 우리 것에 대한 21세기적 공통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직전까지도 개량과 폐기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이기에 의아한 것도 사실이다. 이 대상들은 당대와 불연속적 단절, 그리고 현재와의 기묘한 공통감이 착종되어있는 것이다. 결국 『별건곤』의 ‘조선의 자랑’의 잡다할 정도의 다양한 서술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대상들을 ‘자랑거리’로 만들어내는 근거이다. 개별 사물들, 90개가 넘는 기사들⁸⁾을 통해 자랑하는

6) 『자랑호』 읽으시는 분께(社告), 『별건곤』 12·13호 합본호(1928), 1면.

7) 94개의 기사들은 단군부터 맹꽁이·과충류까지 자랑대상으로 삼고, 문일평·안확부터 자동차 운전수 요릿집 보이, 기생까지 발언주체로 아우르고 있다.

8) 부록의 전체 목차 참조. 본문 목차표의 일련번호는 잡지 수록 순서상의 일련번호이다.

그 개별사물들이 과연 어떤 가치화의 과정을 경유해, 당대 ‘우리의 자랑’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푸코의 ‘언표적 장’이라는 개념과 연관지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별적인 기호들의 사물적 집합을, 가치판단을 내포하는 명제로 만들어주는 체계 혹은 가능성의 장”으로 해석가능하다.⁹⁾ 이 언표적 장은 인식론적으로는 지식의 범주체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역사적으로 해석가능한 당대의 담론장과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합적 그물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음을 단순화한다면, 김치나 온돌이나 비위생적이고 더러워지기 쉬운 흰옷 따위, 혹은 조선시대의 한문학 과문 시부, 심지어는 호랑이나 맹꽁이 개미등을 ‘우리의 자랑’이라는 집단화된 명제가 차로 만들어내는 이들의 언표적 장, 담론적 장치들을 살피고자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90개가 넘는 기사들은 대략 4가지 관점에서 구획가능하다. 1. 과거·조선을 ‘근대적 知(학문, 문화, 예술)’의 체계로 질서화·범주화하는 체계, 즉 특수를 보편화하는 방식 2.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를 경계짓는 방식, 3. 우리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통해 재산권을 유추하는 방식, 4. 우리의 다양성의 범위와 대표성을 표상하는 담론정치학으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1) 근대지(知)로 포위한 과거

(1) 보편주의적 체계와 실용주의적 가치

김치나, 거북선, 흰옷, 대동여지도, 예의범절이나 순량한 기질, 총명함, 아악, 과문시부 등, 층위나 정당성의 근거가 모호한 다양한 개별적 특수한 대상을 자랑으로 설득하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보편주의’를 들 수 있다. 특수한 개별대는 범주, 분류화, 객관주의, 인과관계 등의 보편적 근대 지식체계 속에 등록·이입됨으로써 정당화되어 기술되는 것이다. 예컨대 흰옷, 김치, 온돌이라는 개별대상은 의·식·주라는 보편적 범주를 통해, ‘개미 이야기’라는 민간에 퍼져있는 사소한 옛 이야기는 ‘전설’이라는 상위범주를 통해, 문화적, 學知적 체계 속에서 위치되어 배치된다.

『별건곤』(1928년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목차의 비교¹⁰⁾를 통해 보듯 정연한 근

9) 미셀푸코, 이정우 역, 『지식의 고고학』(나남), 134~144면.

10) 전체 목차는 부록 참조, 이 목차는 별건곤의 해당 특집호 목차 및 본문을 대조해서 작성한 것이

대적 지식구성체계이다. 이는 특수한 개별태를 분류화와 범주화를 통해 상위 범주로 소속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별체는 상위체계로부터 질서있는 지식체계 내에 소속된다. 즉 과거를 사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범주화된 영역으로 체계화되어 자랑의 거리들이 목록화되어 있다는 것이다.¹¹⁾ 학술자랑, 발명자랑, 미술자랑, 음악 자랑 등 근대 학지 체계 속에서 자리를 잡아있어서, 이를 통해 조선의 자랑은 특정한 사물의 好惡의 문제와 같은 주관성의 차원이 아니라, 과학, 학술, 종교, 예술이라는 학문분과, 의·식·주 생활의 범주 속에 정당화된다. 이 상위 범주는 그 하부에 다수의 대상들을 거느릴 수 있는 개방성과 평등성, 그리고 외부와의 비교에 의한 각기의 고유성 및 차별성, 이를 통해 비교우위로서의 희소성을 획득할 수있게하는 핵심체계이다. 이 범주의 知의 체계 속에서 조선은 개별적인 것들의 무질서한 집합이 아니라, 보편적 자기완결체로서의 내적완결성을 갖는 독립체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표 1〉

16	학술자랑	조선심 차진 조선문학	문일평
17		묵어도 가치 높은 과문시부	리광중
18	발명자랑	문자중의 쾌왕 한글	신명균
19		현대명명의 산모, 활자의 발명은 조선이 수위	이윤재
20	종교자랑	천도교와 조선(삭제)	김기전
21		불교와 조선문화	이능화
22		조선의 미술자랑	홍순혁
23	미술자랑	현대 공예보다도 탁월한 고려시대의 도자기	최진순
24		세계적으로 자랑할 조선의 13대 화가	고의동
25		과거 조선미술의 단편(자랑거리 한 두 개)	어 덕
26		세계절품 대원각사비와 솔도파	고고생
27	음악자랑	세계인이 흠탄하는 조선의 아악	안자산
28		조선 고악의 변천과 역대 악단의 명인물	풍류랑

다. 당대 다른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목차의 제목과 본문의 제목이 다른 것이 일부 있고, 목차에서 예고되었지만, 검열 등의 이유로 삭제된 것이 있다. 재구성한 목차는 이것을 가시화했다. 스테마별 목차는 본문에서 제시하고, 목차표의 일련번호는 기사들의 잡지계제 순서를 나타낸다.

11) 『개벽』(1925)에서의 특집 때는, 자랑 특집을 집필자들의 서술 및 인터뷰 대상자들에 그대로 의존하는 상태였다. 때문에 자랑이라는 가치화에 개별필자들의 호오(好惡)가 엇갈리거나 아예 자랑이 없다는 비판적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었다.

서술의 방식에서도 이 부류의 글들은 이런 학문적 보편성의 방식으로 접근된다. 즉 학술, 발명, 종교 미술, 음악 등의 범주하에 각론으로 언급되는 12편의 글들은 각각의 서술방식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상의 개념, 학문의 체계, 역사, 대상의 가치, 비교, 대표작품(대표작가) 서술을 논하는 식이다.

예컨대 미술자랑의 경우, 『조선미술의 자랑』(홍순혁)의 경우, “나는 우리 미술의 小考를 草하러 할 제 建築, 彫刻, 繪畫에 工藝品을 너허 나의 考察圈을 삼으려 합니다. 이것은 日本帝展에서 去年부터 在來의 日本畫, 西洋畫, 彫刻의 3부 외에 工藝科를 신설함을 보아 그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와 같이 대상 학문(예술)의 범위와 체계, 한국의 미술사를 1. 先史時代와 古代 美術, 2. 漢族文化輸入時代 3. 三國時代 (고구려, 백제, 고신라와 가야시대, 와 같은 역사적 체계로 기술하다. 그리고 필자를 달리하며, 『현대공예보다도 탁월한 고려시대의 도자기』(최진순)에서 대상의 과학적, 예술적 가치, 그 분야의 13명의 대표화가를 기술하고(『세계적으로 자랑할 조선의 십삼대 화가』), 대표작품(『세계절품 대원각사와 솔도파』)을 논하는 식이다.

음악자랑 역시 같은 수순을 취한다. 『조선고악의 변천과 력대 악단의 명인물』(풍류랑)은 “壇君이 한울에 祭祀 지낼 때에 벌서 神樂을 쓰고 箕子가 東으로 망명할 적에 또한 樂師를 다리고 왔다는 말은 讖 記錄에 잇지만은 그대에 과연 엇더한 音樂이 잇섯던지 그것은 자서이 알 수가 업다. 그 뒤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음악이 상당히 발달되고 音樂家도 또한 名人物이 만헛스니”라는 식으로 기록에 근거해 음악사의 시초를 언술하는 방식으로 근대적 지식으로서 접근하다. 또한 아래의 인용문과 같이 장르와 범주를 나누어 설명한다.

“아악, 당악, 속악의 3종의 구별이 확립하기는 고려시대 … 속악은 俗樂은 즉 本國樂으로 動動, 西京, 大洞江, 五冠山 등 24곡이 잇는 외에 新羅 俗樂이 잇스스니 다 本國語를 用하고 唐樂은 高麗 睿宗 以前에 支那에서 傳來한 者로 本國에서 改正한 것이니 獻仙桃, 壽廷長, 五洋仙, 拋球樂 등 凡 40여 곡이다 … 麗朝 때의 惡器로 말하면 雅樂에는 鐘, 磬, 琴, 瑟, 簫, 笛, 笙, 鼓 등을 用하고 唐樂에는 方響, 洞簫, 笛, 牙箏, 大箏, 教坊鼓를 用하고 俗樂에는 玄琴, 伽倻琴, 大琴, 牙拍無尋, 舞鼓, 稽琴, 中琴을 用하고 麴栗, 琵琶, 杖鼓, 拍, 등은 唐樂, 俗樂에 併用하였다.”¹²⁾ (154~155)

이를 통해 조선의 자랑은 단순히 누구의 그림이나 악기라는 개별 대상이 아니라, 또 어떤 이미지, 상징, 혹은 이념이나 감정의 호오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 인식론적 대상성을 획득한다. 상위의 범주, 내부의 개념, 역사, 종류, 하위체계, 시작과 발생, 전파, 인접국의 영향과 수수관계를 통한 발전을 갖는 독자적이고 발전된 문화의 단위체로 자리매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주의적 체계하에 자리매김된 개별체들의 공통된 특성은 무엇인가? 상당수의 기사에서 자랑거리를 서술하는 내용근거는 주로 실용주의, 합리주의, 과학성, 독창성 등으로 수렴된다.

예컨대 '역사이야기 부류'에 해당되는 「70년 전에 단신조사, 독립창제한 고산자의 대동여지도」(육당학인)은 “작가 개인적 성품과 성의와 노력, 실지의 답사경험을 주로 하여 대개는 그 역사 실사의 자료로서 제작”한 것에 특징을 둔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백두산만 세 번인지 네 번인지 올라갔었다더라만 여하간 한사람의 피로 의장되고 땀으로 작성된 것이요, 과학적 정신, 과학적 기초로서 산출된” 것으로 평한다. 그래서 “대동여지도는 방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근대적이고”, “대동여지도로 인해 표현된 조선인의 실사구시의 양심, 성의, 능력이 이렇게 강열하고 진지한 것을 나는 자랑한다.” 또한 발명자랑에서 활자와 한글은 그 독창성, 과학성, 편이성이 자랑의 이유로 거론된다. “활자인쇄로 한 國政의 大要를 삼아서 書籍의 廣布에 注力하였슴은 世界文化史上에 한 特筆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를 보건댄 넷날 우리 민족의 독창력의 이렇듯 만हत슴과 발명력의 이렇듯 컷슴은 세계에 엇더한 민족이라도 따르지 못할만하지 아니하였는가.”(『현대문명의 산모, 활자의 발명은 조선이 수위』-이윤재) “우리 글은 저 日本의 가나만큼 쉽지는 못하여도 배호기로 미상불 쉬운 문자이오, 그 조적이 과학적인 점은 오늘날 音韻文字 중에서 霸王이라고 일컫지 안홀 수 업다.”(『文字中の 霸王 한글 -신명균』) 등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거북선이나 온돌 등의 가치를 설명할 때 역시 합리성과 과학성에 준하는 등, 과거의 자랑스러움은 대부분 과학성과 합리성, 실용주의적 가치를 통해 설득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대상을 보편주의적 체계로 등록시키고 실용주의적 가치 기준을

12) 『별건곤』 12~13 합본호(1928.5), 154~155면.

통해 서술하는 양방향의 담론전략을 통해, 거북선이나 활자 대동여지도 같은 특수한—근대적인—대상과 과문시부, 아악, 개미이야기 등과 같은 또 다른 특수한—전근대적인—대상이, 1920년대 당대 현재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시간적 연속체로서의 조선

이렇게 조선의 과거를 대상으로 한 자랑담론의 기사들에서 대상들이 학술, 발명, 미술, 음악 등의 학지적 체계로 보편화되어 배치되고, 개별 서술 속에서도 동일한 논리적 체계를 통해 기술됨으로써, ‘과거’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것’으로 현현된다. 특히 조선의 과거를 자랑하는 근거가 현대적 ‘실용주의·과학주의·독창성·합리주의’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연속체로 사유할 수 있게 해준 근거로 기능하기도 한다. 개별적 특수태는 분명 과거의 것인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포위하는 지적 담론의 가치중립적 보편주의 속에서, 그 가치중립성이 갖는 무시간성의 효과, 선택된 개별태를 기술하는 합리주의적 실용주의적 가치로 인해, 기존까지 과거가 갖던 시대에 뒤떨어짐, 부끄러움, 수치 같은 감정판단적 속성들을 탈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과거와 현재의 단절적 구분이 후면화된,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연속체로 보는 담론표상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학술자랑 속에서 호명된 것은 과문시부와 정음, 조선문학이고, 발명자랑에서는 활자와 한글, 예술로서는 아악이나 그림, 도자기들이지만, 그것들이 무시간적 보편성하에 언제든 같은 계열 속에 다른 대상들이 덧붙여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그다지 전면화되지 않는 것이다.

대중잡지 미디어가 조선의 과거를 분과학문화의 방식 속에 전유하면서, 가치중립적 실증적 대상이자 자기고유의 법칙과 발생의 체계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는 것이다. 이런 기술체계속에서 조선은 과거와 단절없이 현재, 미래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연속체의 표상을 얻게되는 것이다. 이 표상의 방식은 대중적 知的 체계 속에 처음 등장한 자기표상 방식이다. 이런 효과는 이런 편집의 체계와 기술의 방식 외에, 직접적으로 ‘역사’를 다루는 기사 및 그 배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이야기 구성의 방식에서 더 관철된다.

〈표 2〉 역사이야기

2	조선역사상 삼대 전첩	백만수군을 일거 전멸한 을지공의 살수대첩	문일평
3		일편고성으로 삼십만당병을 격퇴한 양장군의 안시대첩	차상찬
4		맹산, 서해, 만고정충의 결정, 이충무공의 한산대첩(전문삭제)	신형철
5	조선역사에 가장 광휘 있는페이지	문덕무공을 크게 빛내인 고구려의 영양왕시대	일 평
6		고구려의 무위가 발양된 곳	김도태
7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반포	이병기
8		세종성대의 문화	이윤재
9		조선아가 잘 발양된 페-지(전문삭제)	최남선
10		박연암의 사상(전문삭제)	강 매
11	조선시조단군연구		최남선
12	동아천지를 호령하든 조선해군		일기자
13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선인물		수춘학인
14	조선의 여행부덕, 대표적 關閣偉人		홍승기
15	칠십년전에 단신조사, 독력 창제한 고산자의 대동여지도		육당학인
16	갓 자라나는 조선 영화		심 훈

역사이야기 14편은, 최남선의 『조선시조 단군 연구』로부터 “조선역사상 삼대전첩”이라는 테마 하에 을지문덕, 양만춘, 충무공(삭제) 3편을, “조선역사에서 가장 광휘 있는 페이지”라는 테마하에 고구려 영양왕 때의 무위(武威)와 북방으로의 전과, 세종시대의 훈민정음과 문화적 성세(盛世)와 북방개척의 역사를 다룬 6편을 싣고 있다.¹³⁾ 『學界에 자랑할 東方의 大哲人 李退溪와 李栗谷』(이병도)에서 이퇴계와 이율곡이, 그리고 『동아천지를 호령하든 옛날의 조선해군』에서 고구려 영양왕 이후 신라 문무왕, 조선시대 세종과 이충무공까지의 해군의 역사와 충무공이 창제한 구선(거북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선인물들』에서는 무인으로서 장보고, 강감찬, 권율, 문장가로서 신라 때 금생, 최치원으로부터 이조시대의 문장가까지, 외교관으로는 고려 성종 때의 서희로부터 조선시대 신숙주, 최근세의 최수운, 김옥균, 손의암 등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13) 이 중 『조선아가 가장 잘 발양된 페-지』(최남선)과 『박연암의 사상』(강매) 두 편의 글은 삭제된 흔적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리고 『幽閒貞靜世界에 冠絶할 朝鮮의 女行婦德, 代表的 閨閣 偉人の 實話 2, 3』(팔판동인)에서는 혜경궁 홍씨, 허정승자씨, 리기축 부인, 금문곡부인을 들고, 근세의 「칠십년 전에 단신조사, 독립 창제한 고산자의 대동여지도」(육당학인)가 상세한 지도 도해와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내려온 역사이야기의 마지막은 심훈의 「아득 숨겨 가진 자랑 갓 자라나는 조선영화계」이다.

이런 역사이야기를 통해 조선의 과거는, 태곳적 단군으로부터 갓 자라나는 ‘지금’ 즉 그 당대의 영화계까지, 일련의 장구한 연속체를 갖는 민족(잠재적 국가)으로 현현된다. 이 민족(국가)은 그 내부에 문, 무, 외교, 학술, 예술, 여성, 그리고 독창적인 창조적 개인들까지 부족한 없이 완비되어있는 문화적 독립체로 구현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역사이야기의 구성에 속하는 개별적인 글 속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동아천지를 호령하든 옛날의 조선해군」의 “삼면으로 바다가 둘러 있는 반도국으로 동에는 일본 서북에는 지나의 두 큰 강적이 있어 때대로 해적과 가티 국사를 침략하는 고로” 조선해군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구려 영양왕 이후 신라 문무와, 조선시대 세종 때와 이충무공까지의 해군의 역사, 그리고 군함 발달의 구체적 내용과 거북선(구선)에 대한 10항목의 구체적 설명과 그림도해에서 보듯, 치밀한 논증과 객관적 증명, 역사적 인과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런 담론전략은 개벽사 편집진의 ‘종적인 역사와 횡적인 현재를 모두 담겠다’는 강한 의도로 해석할 수있을 것이다. 이 종적·횡적 포괄의지는, 이 특집의 기획의도라고 할 수 있는 두 편의 글 「上下半萬年の 우리 歷史-縱으로 본 朝鮮의 자랑」(차돌이)과 「白頭山에서 漢拏山까지 橫으로 본 朝鮮의 美」(박돌이)¹⁴⁾을 통해 정연한 형상적 이미지까지 부여되어있다.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어 갓자라나는 영화계까지 이어지는 ‘종적인 연속체’, 학술, 발명, 미술, 종교, 음악 등 ‘근대적 학지체계’라는 횡적인 보편의 체계, 이 양축의 표상전략 속에서 조선은 선택적 긍정이나 부정, 개량이나 폐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자기 완결적인 단위체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이는 문화적 독립성과 고유성을 근거로 역사성과 정통성을 갖는 민족국가로 상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권을 당위화하는 근거가 문화적 고유성이며, 그 문화적 고유성을 근대 학지적

14) 부록 목차의 47번 48번.

보편성 속에 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적 고유성(과거)과 현재를 잇는 핵심적 가치인 과학, 합리, 실용성이 자신들의 미래적 정당성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근대학지를 승인하기 → 문화(과거)를 정당화하기 → 현재(미래)의 권리를 상상하기”의 구도속에서 문화, 과거, 조선이 핵심적 지위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와 같은 연속체로서의 시간설정, 근대와 전통이 관계맺는 방식에서 1920년대 개벽사가 주도한 독창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만들어진 전통에 대한 담론이나 표상은, 무엇이든 근대적 가치와의 관계설정 속에서 특별한 시간 표상의 구조 속에서 호출된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근대와 전통이 ‘연쇄·궁정·연속성’의 표상으로 설정되는 국면은, 분명 이전시기 문명개화론이나, 1930년대 조선학운동 등이 설정하는 단절적 과거 표상과 대비되는 지점이다.¹⁵⁾

2) 비교를 통한 평등의 감각

이상으로 자기 과거를 근대적 학지 체계라는 보편적 체계로 정당화하고, 그럼으로써 조선-자기를 과거와 연속성을 갖는 독립적 단위체로 구현하는 방식을 살펴해보았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를 정서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된 객관적 실증적 대상으로 만드는 방식과, 그 대상이 과거와 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적 유기체임을 가정하는 사고는 서로 연동되어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시간과의 경쟁 속에서 자기-과거-조선을 정당화시키는 차원이라면, 근대성의 다른 차원, 제국주의가 끌어낸 지구적 차원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한편에 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우리는 남과 비교해도 정말 자랑스러운가의 물음에 대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가 문명개화의 강박, 사회진화론적 따라잡기로부터 발원된 상태에서, 남과의 비교 속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위치, 특히 외국(서구)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정당성을 가치화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시대를 막론하고 조선인의 자기 이미지는, 끊임없이 ‘외국인의 시선’에 대한 강박관념에 시달려왔다고 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한 계몽은 언제나 ‘외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일지 자못 부끄럽다’는 언설과 짝해서 존재해왔다. 이 시기 바로 직전까

15) 단절된 과거표상이 이전시기 문명개화론에서는 개조의 대상이거나, 1930년대 조선학운동에서는 정신적 혼으로서의 순수로 명명된다.

지도 외국인의 눈에 비춰진 자기는 비문명·비위생·뒤쳐짐에 대한 부끄러움¹⁶⁾이 다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담론장 내에서, 개벽사의 조선의 자랑 특집은 매우 생경하고 이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벽사의 1차 자랑특집(1925)에서는, 조선의 자랑거리 에 대해 외국인에게 단답형 대답만 요청하는 인터뷰를 실었다.¹⁷⁾ 이런 타자의 시선, 타자와의 비교를 통한 자기정당화는, 1928년 『별건곤』에서 더 치밀하고 세분화된 담론 전환전략을 보인다. 이는 분명, 타자(서구, 외국)의 지위와 호명을 이전과 다르게 기능변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선의 자랑특집에서 외국과의 비교는 소특집 3가지—“외국과 싸운 이야기”, “외국인이 본 자랑”,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을 통해 20개 이상의 소기사가 서술되고 있다.¹⁸⁾

〈표 3〉 외국과 싸워 이긴 이야기

43	외국인과 싸워 이긴 이야기	외국인을 경도케 한 강악원씨의 권투전	손 발
44		세계에 부끄럽지 않을 조선의 풋볼경기	김원태
45		미국에서 찬양받는 『聖 푸리티』, 조선수제 변홍규군	방인근
46		대동강상에서 미함을 소파하던 최란헌 사건의 전말	翠雲生

“외국과 싸워 이긴 이야기” 테마에서는 권투 선수, 풋볼 선수가 외국인과 싸워 이긴 통쾌한 이야기, 외국대학에서 유학하는 학생의 총명함을 말하는 이야기, 그리고 『대동강 상에서 미함을 소파하던 최란헌 사건의 전말』 등 4개의 기사가 있다.

『외국인을 경도케한 강악원씨의 권투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8년전 … 피가

16)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 이쪽도 구습이 가득한 상투를 그대로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 외국사람의 시찰단이 눈에 띄이며 사진 박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꼴 참 보기 싫어요” 대갈생,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개벽』(1920.6.25.); 박춘파도 『사회이면의 중흥기』, 『개벽』(1920, 8)에서 ‘무생기적 무능력주의’를 배격하고 정신과 신체의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의복의 통일, 머리 모양의 통일 등을 말한다.

17) 차혜영, 앞의 책.

18) 그리고 앞서 조선의 과거를 근대적 학지의 범주로 기술하는 기사의 내부서술에서도, 개별 대목마다 외국과의 비교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금강산은 알프스와 비교되어 긍정되고, 조선의 온돌은 중국의 ‘강’과 비교되어 긍정되며, 을지문덕은 “獨逸名將 『힌덴볼크』 이상의 大戰略家로서 몸스스파이도 되며 敗將軍도 되며 또 혹은 詩人也 되어 千變萬化하는 그 詭謀는 적으로 하여금 거의 應接도 맞지 못하게하여”처럼 독일의 명장과 비교된다.

끝코 살이 뛰는 구주각국의 나절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권투를 본위로 하고 세계각국을 유람하는 여행단을 조직해가지고 미주, 일본을 거쳐 조선에 온”사연을 말한다. 이 시합에서 강악원이 통쾌하게 이긴 과정을 생생한 묘사, 현장적 스토리, 감정적 격앙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예컨대 “코 큰 양반의 분노소리!”, “강씨는 최후의 용기와 일생의 정력을 다하여 때리라 덤비는 상대자의 두 팔을 낮세계 잡았다”, “조선인에게 진 것을 분하게 부끄럽게 여겨서 강씨의 흥부와 복부 사이를 물어뜯은 것”, “총 87:99로 영원찬란하게 광영있는 승리와 최후의 월계관을 조선유도계에 끼쳤든 것이다. 기운보다도 기술보다도 조선적 조선심과 조선혼의 발로 우승이었던 것이다” 같은 대목이 그러하다. 8년 전 사건을 현장 생중계의 방식으로 치밀하게 묘사하고, 승리를 향한 긴박한 혈투를 묘사하는 방식, 조선심과 조선혼의 승리로 물고가는 감정적 민족주의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세계에 부끄럽지 않을 풋볼 경기(김원태)』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의 강팀이라는 大板 삭가-단과 전일본 선수권을 가졌든 廣島 리성구락부 또 일본을 대표하여 극동올림픽에 출전하였던 조대팀이 경성에 왔다가 모조리 참패를 당하고 갔던”일을 적고 있다. 『미국에서 찬양받는 『성푸리티, 조선수재 변홍규군』(방인근)은 서사적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취한다.

“下鴻圭君을 이는 사람이 朝鮮서는 만치 못할 것이다. 君은 현재 米國에서 공부하는 29세의 청년”, “君은 神學과 哲學과 文學을 專攻하였는데 그 성적이 여러 白人學生을 압도하였다. 쉬히 獨逸로 가서 電氣學을 전문하려한다고 한다. 君은 특히 博言家이다. 英語, 獨逸語, 佛語, 日語, 中國語, 希臘語를 보통으로 하는 것이 大端하안이라 能通이다. 美國 몇몇 도시에서는 푸리티, 변(Frity Pyen)이라면 처음보는 天才人物이라고 美國人의 찬양이 대단하다. 특히 君은 基督教 信者로 남다른 열렬한 신앙을 가지고 또한 행동으로 실현하여 『聖 푸리티』라고까지 부른다고 한다. 그래 到處에서 請하여 講話를 하여 달나고 頻頻한 交涉이 오며 美國女子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君을 다리고 자기 가정으로 請한 후 여러 친구를 모하노코 君의 얼굴을 보려하고 니야기를 드르라고 애를 쓰는 일도 만다. 그러나 君은 여자교제에도 조고만 실수를 하지 안는다. 君은 未婚者요 너머도 神聖한 童男이다. 이제 그의 빛난 성공을 하기까지의 美談을 대략 써보려 한다.”¹⁹⁾

결국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 외국인과의 시합에서 한번 이긴 권투선수, 그리고 축구시합에서 이긴 일 등 일회성 사건을 직접 보는 것 같은 생생한 묘사, 감정적 민족주의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개한다. 이런 논조에서 매우 기이한 모양새를 띄는 것이 『대동강 상에서 미함(美艦)을 소파하던 최란헌 사건의 전말』이다. 이것은 재너털 서면호가 조선에 들어온 ‘신미양요’를 서술한 역사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개항을 둘러싼 쇠국과 개화, 서구와의 대면이라는 역사를, 그 역사적 의미부여의 맥락을 탈각하고, 선정적이고 생생한 사건현장적 묘사, 공격과 복수 등의 통쾌함으로 기술하고 있다.

“洋船이 連燒되니 火光이 일시에 衝天하여 大洞江이 불바다로 化하고 一方으로 官民은 合同하여 복을 치고 放砲를 하며 숨시 좋은 平壤의 돌팔매질까지 하니 그 猛烈하고 危險한 勢가 비록 鬼神이라도 哭泣을 하고 驚惶失色하게 되엿다. 주머니 속에 들은 窮鼠와 가튼 洋人들은 그 凶暴 頑慢하던 氣色이 다 어디로 가고 船頭에 나서서 두 손을 짹짹 빌며 殘命을 구하얏다. 그러나 그때가 어느 때라고 될 번이나 한 수작이나. 彼等 일행은 속절업시 모다 朝鮮군에게 捕縛되야 亂刀之下에 大洞江口의 異域孤魂이 되고 말엿다. 朴珪壽의 重要 官吏는 그 功으로 政府의 特殊한 褒賞을 바뎠섯다”²⁰⁾

이는 ‘신미양요’라는 국가적 역사를 ‘최란헌’(영국인이지만, 통역인지 불분명한)이라는 개인의 우연적인 실화처럼 전환시켜 제시한 것이다.²¹⁾ 이를 통해 서구와 문명, 조선과 식민지화라는 사건을, 한 장면의 승리의 통쾌담으로 전치하는 것이다. 평범한 당대 이웃들의 이야기와 함께 놓인 서구열강(최란헌)은, 대동강을 불바다로 만들고 평양사람들의 돌팔매질에 두손 짹짹 빌고 잔명을 구하는 평범한 이웃인 것이다. 문명국, 서구는 그렇게 싸워 이겨본 평범한 당대의 이웃 이야기로 호출되는 것이다.

19) 『별건곤』, 앞의 책, 106면.

20) 『별건곤』, 앞의 책, 110면.

21) 이후 말미에서 “제네탈 서어맨號 사건을 朝鮮及中國의 기록에는 보통으로 崔蘭軒사건이라 稱하야 그것이 西人인지 中國人인지 알는 알기가 어려우나 英人 牧師 도마스가 自稱 崔蘭軒이라고 한 판 기록을 보면 그가 英人인 것은 물론이다.”라고 부기하고 있다.

〈표 4〉 외국인인 본 자랑

49	외국인이 본 조선의 자랑점	단군의 청렴과 기개	한, 푸름
50		산천기후의복	깨루만
51		첫제안녕하고	마리부인
52		동방의 고문화는	호홍명
53		내가 조선 찾기는	해나쉬

“외국인이 본 자랑” 소테마는 외국인의 짤막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육성의 형식을 통해 조선의 자랑을 말한다. 독일 세균학 교수는 조선인이 “청렴하고 깨끗하며”,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 논문에도 결코 부정한 수단을 쓰지 않아 잘되나 못되나 자기 손으로 써 옵니다.”라고 하고, 프랑스 대사는 “구라과의 서서(瑞西)의 산천이 제일 좃타고 하야 왈 세계공원이니 세계락원이니 하지만 조선의 산천은 서서에 비할 바가 없다.”고 하고, “조선양반의 의복 … 특히 평양 같은 곳을 가서 여자들의 흰옷에다 흰 수건을 쓴 것을 보면 더욱 깨끗하고 고와 보인다.”고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인 마리 부인은 편지글의 형식으로 조선체류 3~4년을 회고하며, “인심이 후하고 … 평화스럽다”하고, “조선 사람의 가족제도, 형제간의 우애, 조그만 잔치가 있어도 친척을 부르고 친구를 청하야 같이 놀고먹고 있는 조선가정의 습관”을 칭찬하다.

이처럼 외국의 대학교수, 대사, 외교관 부인 등은 그들이 가진 지위와 권위를 통해, 조선인의 인심, 가족애, 정직, 청렴, 산천과 기후, 흰옷을 칭찬 보증하고 있다. 하잘 것 없는 일상의 풍속과 흔하디흔한 기후와 산천은, 그들 권위있는 발언자들의 지위의 보증, 직접 겪은 경험과 육성이라는 감각적 경험주의를 통해 자랑거리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의 눈은 더 이상 문명자라는 ‘무정의 서구’²²⁾의 눈이 아니라, 세부로 분절되고, 개별의 경험과 사건을 통해 미시적으로 호출된다. 그 호출된 타자의 한정적 시선을 통해, 자기의 발견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외국인의 눈에 의해 자기가 발견되지만, 그 외국인의 눈에서 문명이라는 거대한 보편을 떼어내, 개별화된 경험의 보증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런 외국인의 기능적 위상변경(기존의 문명

22) 사카이 나오키, 강내희 역, 『서구의 탈구와 인문과학의 지위』, 『혼적』 1호(문화과학사, 2001).

의 위계라는 시선체계를 뒤집는)을 통해 자기의 세속적 일상의 긍정을 기획하는 것이다.

〈표 5〉 외국 가서 생각하는 것

74	외국가서 생각하는 조선 것	음식, 산수, 인정	박승철
75		고국의 한울 기타	신형숙
76		오직 명량한 기후	최두선
77		날마다 일요평화의 상징	이성용
78		사람으로의 조선 음악으로서의 조선	박석윤
79		암만해도 못 잊는 것	정석태
80		꿈속에서 그림든 조선 산천	여운홍
81		조선어와 조선복	김우평
82		잊치지 안튼 기후와 김치	김준연
83		의식주 그리고 산천	유 경
84		조선의 달과 꽃, 음식으로는 김치, 갈비, 냉면도	이정섭
85		온돌과 김치	류영준

이처럼 외국은 싸워서 이겨보고, 그 사람들의 개별화되고 미시화된(상대적인) 인정을 통해 자기를 우월하게 발견하게 되는 방식으로 기능변경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은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살아보고, 그 경험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이 소테마하의 12개의 기사들은 음식, 인정미, 김치, 온돌, 명량한 기후, 조선의 음악, 산천, 옷(한복), 진달래 꽃 등을 반복적으로 기술한다. 이것들은 필자들이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각지에서 유학할 때 가장 그리웠던 것들이다. “학생기숙사 같은 데서는 참으로 치워서 견디기 어렵고 간절히도 온돌이 생각났습니다”, “의복에 대해서 제일 사모된 것은 동복보다도 하절에 고흔 모시옷을 안전하게 다름질해서 입으면...”, “구주에 있어서는 항상 육식을 만히 하는 까닭에 무엇보다도 김치가 먹고 심혔다”, “제일 사모되기는 배추김치와 고초장이었습니다.” 와 같이 반복되는 언급들이 그 예이다. 이처럼 외국은 서구(외국)은 싸워서 이겨보고, 그들에 의해 칭찬·감탄받고, 직접 가보고 겪어본 곳이다. 그렇게 상대화되고, 개별화되어 분할되면서, 자기를 긍정하는 담론에 기능적으로 기여한다.

이는 「萬國品評會 大爭論記」²³⁾라는 총괄적 편집후기 성격의 가상대담에서 명확하게 두드러진다. 이는 가상대담으로 ‘관상자’라는 가상의 편집부 인물과 ‘미’,

‘독’, ‘영’, ‘프’ 같은 가상인물이 각자의 입장에서 ‘조선의 자량’에 대해 비판하고, ‘관(관상자-편집주-조선인)’이 그에 대해 반론하는 방식의 풍자적 증계기이다.²⁴⁾ 요약하면 각국의 비판 —“자량자량 하는데, 자량거리가 뭐 있느냐, 흰 옷은 더럽고, 주택은 도야지 우리 같고, 프랑스처럼 대극장, 대경마장, 대공원, 대도서관 따위가 있느냐, 영국처럼 해군이 발달되었느냐…” —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관상자는 “흰옷도 … 조선은 먼지도 없고 산천 공기 등이 깨끗하여 외국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쉽게 더럽지 않는다”거나 영국 해군의 발달에 대해 군비축소 앞에서 무용지물²⁵⁾이며 … “영국은 영토가 많아서 언제나 해가 지는 날이 업다고 흔히 자랑하지만 그것은 도적이 장물 자랑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업다”고 공격하는 식이다.

자기를 칭찬해주는 서구, 싸워 이겨본 서구, 가서 살아본 서구를 경유해, 자기-조선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기를 보증해주는 서구는 서구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라, 서구를 언표하는 언표적 장을 단절적으로 변동시키면서 발생한 담론효과, 그것이 만들어낸 표상의 체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내부의 각국가들로의 분할, 세부화된 지위와 취향과 역사, 경험주의, 개별화된 사물·사건, 묘사, 경험스토리 중심 서술을 통해, 기존 문명론·진화론적 코드로서의 ‘서구’를 탈각하게 된 것이다. 서구가 갖는 제국적 문명의 위계가 아닌 일상적 풍속의 차원에서 개별적 경험으로 분할되어 등가의 비교 대상이 된 것이다.

이는 앞서 1장에서 본 바와 정확히 대치·조응되는 쌍을 이루는 담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문명화 담론체계에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문화와 역사를 갖는 보편의 담지체였던 서구로부터, 서구가 독점해온 보편을 자기에게 —가치 중립성을 근거로— 할당한 것이다. 반면에 서구는 기존의 보편의 담지체에서, 그 보편하의 다양한 개별자들의 지위로 전환된 것이다. 이런 사고의 전환, 즉 서구를

23) 萬國品評會 大爭論記 場所, 別乾坤誌上 時日, 4월 일 人物, 各國의 말성쟁이.

24) 이런 풍자적 가상 쟁론기 형식은 『개벽』시대부터 ‘은파리’시리즈 등의 사회비판 형식으로 유지되어 온 바 있다.

25) 군비축소는 1921년 11월 12일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워싱턴에서 개최된 해군군비축소 및 태평양·극동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인 워싱턴군축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1차대전 후 급성장한 미국을 통해 일본의 대륙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군축 결정에 각국의 해군력이 축소된 바 있다. 한편 한국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세력은 이 워싱턴 회의에 조선문제를 상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분할하고, 개별화된 서구에 개별적 경험을 할당하면서 상대화하는 시선은, 자기의 보잘것없는 일상적 세속 문화를 긍정하는 시선과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시선의 변경을 넘어서, 타자표상과 자기표상의 담론체계에서 타자 지위의 기능적 변환, 진리가를 보증하는 방식의 역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근대적 학지를 자기에게, 개별사물의 경험 전달을 타자(서구)에게로 할당하기가 이 특집의 언표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시간적 따라잡기’가 놓인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과거 처리를 1장의 방식을 통해 해결했다면, 이번 2장-외국과의 비교-는 ‘근대의 지구적 차원’에서 언표적 좌표를 뒤집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피식민지인의 정체성—우리도 권리가 있다—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20년대 이전 1930년대 이후 잘 드러나지 않는 개벽사가 창출한 대중적 자기표상의 언표장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⁶⁾

3) 재산목록으로서의 朝鮮文化·朝鮮産

과거의 학지적·범주적 보편화를 통한 문화적 정체성과 정당성의 부여, 외국인의 시선체계변경을 통한 일상적 속물적 현재의 긍정이 종합되어 향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의 다른 차원,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이다. 즉 전자의 방식으로 정당화된 문화적 고유성과 후자(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당화된 우리의 권리 및 현재적 일상이 만나는 지점, 즉 권한을 갖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보편적 학지·범주체계’를 통해 그 ‘현재 가진 것’(과거문화유산이 아니라)을 구획하는 기사들에 해당된다.

26) 물론 이는 개벽사 기자들의 남다른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첫째, 1차 대전 이후 세계사적 흐름의 변모 속에서 나타난 후발 근대국가 지식인들의 ‘문화로의 전환’ 및 이 ‘문화를 민족과 연결하는 상상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1925년, 1928년을 통해 국내 부르주아 민족주의 지식인들의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이 만든 차원이 놓여있을 것이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6〉 재산목록으로서의 조선산(朝鮮産)

54	세계에 비가 업는 개암이 전설-세계에 류업는 조선전설(전설자랑)	손진태
55	돌도 업는 寶物, 특색잇는 藝術 -조선은 메나리나라(민요자랑)	홍사용
56	세계명승을 주유하고 와서-우리의 산수미(산수자랑)	박석윤
57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조선산의 화초와 동물(화초동물자랑)	김동혁
58	천하영약 고려인삼(특산자랑)	삼신산인
60	조선은돌예찬(주택자랑)	손진태
61	조선여자복예찬(의복자랑)	류광열
62	조선김치예찬(음식자랑)	류춘섭
63	조선요리의 특색(요리자랑)	안순환

박석윤은 「우리의 산수미(산수자랑)-세계명승을 주유하고서」에서 금강산이라는 개별 사물을 각 나라가 가진 산수의 범주하에 자신이 등정했던 알프스와 비교해 긍정한다. 손진태는 「세계에 비가 없는 개암이 전설(전설자랑)」에서, “각 국민의 설화를 비교하여 연구해 보면, 그 중에서 우리는 각 국민의 민족성과 문화의 특색을 발견할 수있”다는 범주적 당위와 입론 하에, “아모 나라에서도 사물에 대한 연기전설은 그 수가 적습니다”와 같은 희소성의 가치, 그리고 “외국의 동화나 전설을 보면 대개 개미의 부지런한 것을 말할 뿐 왜 허리가 잘룩하며, 왜 눈이 보이지 않고, 왜 그러케 부지런한가, 촉각을 가진 것은 무슨 까닭인지 자세히 관찰한 동화나 전설은 보지 못하였다”와 같은 고유성의 가치를 서술한다. 보편적 범주, 범주 내 비교와 희소성을 통해 가치를 입증해내는 방식이다. 이런 언술을 경과해, 조선에서 가장 쓸데없는 개미라는 미물조차도 “조선의 국보”로 된다. (“나는 이 전설을 이온상군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조선의 국보라고 무릎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산타령’, ‘육자백이’, ‘아리랑’ 등도 ‘민요’라는 범주 하에 “우리나라에 싸고도 비싼 보물”로 전환된다. 더 나아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朝鮮産의 화초와 동물(동·식물자랑)」(김동혁)은 처음부터 “지금 자랑코저 하는 것은 조선 3,000리 강토의 자연계 그 중에도 생물계이다. 먼저 식물만 가지고도 총히 3000여종이나 된다. 그중에도 세계적 특산이라 할 만한 것이 400여종의 만흔 수자를 뵈인다.”고 하며 몇 가지 예로, 무궁화, 인삼, 조선송(柏子), 향나무(紫檀香木), 虎(호랑이), 땃꿩이)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그 외에도 어류며 곤충류 등 조선특산도 만코 자랑거리도 만다.”고 한다.

이처럼, 멧꿍이, 호랑이, 파충류, 밤, 개미까지 자랑거리가 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어떤 문화적 심성이나 역사적 정통성 따위가 아니다. ‘동·식물’이라는 근대학지의 대상으로서의 실증적 대상이라는 범주 때문이고, 이는 곧 대부분의 기술문맥 속에서, 관찰과 조사를 통해 가시화되고 분류된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학지가 전제한 대상의 객관성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소유의 증빙근거이다. 근대적 학지와 자본주의적 소유는, ‘토지조사 사업’처럼, 동일하게 관찰·조사·분류되어 목록화된 대상성의 지위를 갖고, 바로 그 경로를 통해 소유물로 등록된다.²⁷⁾

이들 개벽사 특집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들 편집진과 지식인들은 제국, 자본, 근대적 학지체계가 공유하는 ‘사물적 대상과 소유관계’의 틀로, ‘조선산(朝鮮産)’들을 ‘우리 것, 우리소유’라고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개미나 멧꿍이가 자랑인 이유는 내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천하영약 고려인삼(특산자랑)』은 “인삼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아 그 판로가 점차 확대되어 중국, 일본은 물론이고 근래에는 멀리 남양군도, 미주까지 건너가서 미국산의 엽가인삼을 구축한다.”고 언급된다. 자본주의적 교환체계속의 희소가치를 통한 내소유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조하는 언술인 것이다. 이런 자산목록화된 소유물 목록의 자랑거리들과 함께,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김치, 온돌, 흰옷 따위가 주택자랑, 의복자랑, 요리의 특색을 통해 자산화 된다.

이는 조선을 문화적 완결성과 고유성을 갖는 독립된(권리가 있는) 단위체라는 개념 표상을 통해, 즉 문화적 정체성을 근거로 조선산(비문화적 물질적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선포하는 이들의 인표전략의 핵심적 지점이다. 문화적 권리를 자산적 권리로 호환해내는 것이다.²⁸⁾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문화유산(자산)에 대한 권리—세계여기 저기 흩어진 한국의 불상이나 문서들, 혹은 로마에 가 있는 이집트의 건축물의 소유권—는 사실, 그 소유주가 국가와 영토를 갖는 주권국가이기

27)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여기서 언급된 대상물의 목록, 자연과학적으로 분류된 조선특산물은 사실 이미 제국주의적 조선침탈의 과정에서 조사된 대상목록이다.

28) 이런 조선산 소유물에 대한 강조는 『어린이』(1929년, ‘조선은 이러타’ 특집)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어린이』는 식민지 조선의 소년소녀들을 대상으로 유색된 것이기 때문에, 앞서 1에서 살핀 근대적 학지체계의 기사가 대거 생략되어있고, 스토리텔링에 의존하는 서술과 『별건곤』에서 특화된 재산목록으로서의 우리것에 대한 강조가 가장 핵심적이다. 아예 총독부 자료조사 병기하며 ‘조선은 이러타’, ‘우리가 가진 것’을 서술하기도 한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장될 수 있다. 1920년대 국가와 영토, 주권이 없는 피식민 지식인들은 1절,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공들여 문화의 소유권과 정당성을 설파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편적 가치중립성의 체계에 기대어 소유권 없는 조선산—뽕이, 밤, 인삼, 진달래, 김치, 온돌, 기후, 산, 들, 물—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한국만의 예외적 경우는 아닐 것이다.

“(인도에서) 국가의 상상력으로 투입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데 가장 중요했던 중간 단계는 바로 초기 오리엔탈리즘(유럽적인 변종을 가진)의 본질화하고 분류하는 시선이였다. 뒤를 이어 19세기에 적용된 실사의 관습이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대의리는 관념, 즉 대의 제도에 대한 관념이 나타났다. …(중략)… 18세기와 19세기 인도에서 오리엔탈리즘의 본질화하고 이국화하는 시선은 인구조사와 분류와 카스트, 공동체의 정치학 사이에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연관성을 제공한다.”²⁹⁾

총독부(제국)가 생산한 당대의 센서스, 현지조사, 부락조사 자료는, 실제로 개벽사 ‘조선문화 기본조사’ 사업(1923년)에 자료로 사용되고, 모방되고, 공격적으로 전용된다.³⁰⁾ 즉 피지배 식민지인의 자기지식은 제국, 자본, 근대적 학지 체계가 전제하는 ‘사물적 대상과 소유관계’의 틀—그 매개, 방법적 핵심으로서 제국의 관찰, 조사, 분류를 통해 성립된 계량화, 총체화, 목록화를 통한 소유의 틀—에 복속되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한편으로는 역으로 거기에 개입하며, 경합을 벌이는 전략으로 성립되는 것이다.³¹⁾

29)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 채호석 외 역, 『고삐풀린 현대성, modernity at large』 현실문화연구 (2004), 229면.

30) 개벽사가 1923년 실시한 ‘조선문화 기본조사’ 사업은, 조선의 자랑호 기획과 함께 살펴야할 주제이다. 총독부가 생산한 당대의 센서스, 현지조사, 부락조사 자료는, ‘조선문화 기본조사’ 사업 및 도호특집이라는 이름으로 1923년~1924년 연재될 때, 각 지방의 개황자료로 인용 제시된다. 이 지배자의 조사가 피지배자에게 어떻게 전용되는가의 문제에서, ‘도호특집’이 보여주는 바와, 이 ‘자랑호 특집’이 보여주는 바는 그 양상이 다르다. 도호특집 및 조선문화 기본조사에 대해서는, 차혜영, 『식민지인이 생산한 자기지식—개벽사 조선문화 기본조사—』(동학학회, 2007, 6, 22) 발표 참조.

31)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상술해야할 테마이지만, 총독부가 생산한 객관적 조사 자료가 『개벽』 및 『별건곤』, 『어린이』 잡지에서의 활용, 해석, 스토리텔링되는 방식 등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식민지 지배자(총독부, 경성제대 등)의 조사 관찰 및 지식화 과정에 ‘축탁’, ‘조수’ 등으로 참여하면서 조선학을 진행한 최남선, 손진태 등의 조선학 과정의 내적 변모 역시 이런 복속과 경합의 양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4) 전체의 다양성과 그 대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권리가 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는 이와 같은 담론전략표의 좌표계는 결국, 1920년대 중반 식민지 근대부르주아가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기를 정립하는 당위·정략·선언문이라고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남는 문제는, 그런 권리를 갖는, 그런 소유물을 갖고 있는 우리는, 정말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요컨대 우리라고 칭해질 전체 내부의 범위, 경계, 그 전체의 대표성이라는, 실제로 정치적 주체로서 자신을 정위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90개가 넘는 기사 중에서 남은 항목도 이것으로 범주화 가능하다.

〈표 7〉 요모조모로 본 조선인 장점

65	요모조모로 본 조선사람과 외국사람	동경여관에서 본 조선유학생	소전기요
66		자동차안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박일동
67		기차중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김○홍
68		상점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박월선
69		화류계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이○홍
70		요리점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김덕성

“요모조모로 본 조선사람인 장점” 테마의 기사들은 조선의 자랑의 특집 중에서 아마도 가장 기이한 소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관 주인, 자동차 운전자, 전차 차장, 화신상회 점원, 심지어 한성권번 기생, 요릿집 보이가 인터뷰 대상자가 되어, 그들의 직업세계에서 본 소위 ‘실사의 시선’, ‘경험주의적 시선’으로, 외국인과 비교된 조선인의 장점을 칭찬한다.

그들이 직접 겪은 조선인들은, 일본인, 중국인, 서양인들과 비교하여서, 손님으로서 “친절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 있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나고, “조선인은 상업상 도덕이 발달되어 가고 외국인은 도리어 상업상 도덕이 퇴폐하여 가는 것 같다”, “조선인은 차중에서 점잖고 외국인은 말이 많다”, “기생입장에서 도(술을) 조선사람은 한번 권할 때 못 먹는다면 그만이지만, 외국사람들은 강권한다.” 요릿집 보이 입장에서 “문명인의 표증은 예절일 것 같은데 … 조선인

들은 뽀이에게 존대하고 얌전하게 쭉쭉하게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 문명인 이상의 문명인다운 행동”을 한다고 칭찬, 자랑한다. 앞서 자랑거리의 (재산, 소유)목록에 맹꽁이와 파충류까지 언급되었던 것이, 이제 조선인의 예절바른 기질을 칭찬하는 데는 기생과 요릿집 보이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진다. 우리의 내부는 이토록 다양하고 평등한 다수임을 가시화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잡다성의 가시화와 그것이 표명하는 평등주의는 곧바로, ‘우리’라는 공동성, 곧 ‘대표성’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이고 계급적인 선택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것을 기술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고 심혼 朝鮮 것-늘 자랑하는 것”이라는 테마하의 12개의 지식인 수필이다.

〈표 8〉 “내가 자랑하고 심혼 朝鮮 것-늘 자랑하는 것”

29	자랑하고 심혼 것 늘 자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심혼 조선것	권덕규 의
30		우리들의 문자	박팔양
31		덕성과 제주	박보희
32		건강과 총명	안재홍
33		인물과 산수	장응진
34		민족적도덕성	박희도
35		나는 천도교를(삭제)	정광조
36		세계평화의 선구자	한기악
37		특히 애정이 풍부	박동완
38		가족제도는 세계일	최성우
39		우리의 2대 특성	서세충
40		세 가지 자랑	강상보
41	특별한 천연의 은사	국기열	

이 테마의 특징은, 앞서의 기사들이 대부분 자랑의 ‘거리’ 즉 사물에 대한 기술이었음에 비해, 이 기사들은 ‘조선인의 인간적 성품’, ‘인격적 자질’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누가, 어떤 계급의 사람이 조선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들의 대답인 것이다.

‘우리들의 문자’(박팔양)에서는 “한글을 창조한 조선사람의 총명”을, ‘덕성과

재주』(박찬희)에서는 “문호가 개방된 지금에 … 조선사람과 일본인과의 공학하는 학교에서 그의 성적이 도처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아 잘 증명된다”는 근거 하에 “평화를 애호하는 덕성과 … 두뇌가 명석한 것”을 칭찬한다. 안재홍 역시 “건강과 총명”(『건강과 총명』)을, 징응진은 『인물과 산수』에서 “첫째로는 천재가 탁월하여 무슨 공부든지 외인과 가타하면 반듯이 성적이 수위를 점하고”, “성질이 너그러워서 남을 잘 포용하고 용서하며 여간한 일에는 그리 회노를 회색에 나타내지 않는다.”거나, “신체가 건강하여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것을 든다. 박희도는 『민족적 도덕성』에서 “다른 민족보다 남을 잘 포용하고 존중하는 도덕심이 많다”고 하고, 한기악 역시 “선천적으로 평화를 좋아하고 쟁투를 기피한다”(『세계평화의 선구자』)고 칭찬하며, 박동완은 “다년간 기독교회에서 체험하여 본 것으로 조선사람처럼 사랑심(애심)이 많은 사람은 못보았다”(『특히 애정이 풍부』)고 한다. 최성우는 “동족에 대하여 친형제나 숙질 같이 여기고 … 족보제도는 미풍”이라고 (가족제도는 세계에 모범)한다. 서세충은 어질고 잘 참는 성격을 조선인의 이대특성(『조선인의 이대특성』)으로 언급한다.

대부분의 글에서 조선인의 자량은 총명한 두뇌, 우수한 학교 성적, 너그럽고 평화롭고 포용적인 덕성이라고 언급되고 있다. “싸우지 않고 학교 공부 잘하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부모가 바라는 자기 자식의 소망형이지만, 적어도 당대 1925년, 28년 시점에서 이 학교성적이나 평화적 덕성은 매우 기이하고 수상적이다. III장에서 언급하겠지만, 1920년대 중반 거둬들인 소작쟁의, 노동쟁의, 조선공산당 성립, 해산, 재건, 치안유지법 실시 등을 상기해보기만 해도 이 조선인의 자량은 수상적은 것이다. 그러나 개혁사로 대표된 부르주아민족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누가 우리 자산의 진짜 소유주가 되어야하는가를 묻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본다면 수궁이 되는 지점이기도하다. 그 공동소유자산에 대해, 누가 진짜소유권을 갖는가, 그 공동의 우리를 대표할 진짜 주인의 자격은 무엇인지, 누가(무엇이)조선을 대표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인 것이다.

3. 1920년대 중반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대표성 경쟁과 자치론

지금까지 『별건곤』 ‘조선의 자랑’ 특집의 94개의 기사를 1. 우리는 누구인가(역사적 정통성과 문화적 고유성) 2. 우리는 권리가 있다(비교와 평등) 3. 그런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재산권), 4. 우리의 다양성의 범위와 그 대표성(정치적 대표의 자격)에 대한 문제로 해석해왔다. 이는 1920년대 이전, 즉 1차 대전 이전 문명론이나 사회진화론적인 시간 따라잡기를 통해 자기를 세계 발전의 시간표 끝 자락에 두는 사고 방식과도 다르고, 1930년대 이후, ‘자기’를 비실용, 비자본주의, 비근대적인 정신적 상징이나 이미지에 두는—단군, 로컬리티, 여성적 심상—과도 다른 지점을 살필 수 있었다. 이들의 ‘조선-공통의 우리’는 진보하는 시간, 미래로의 시간 속에 과거-현재-미래로의 발전론적 연속체 속에 자기를 준거시키고, 과거로부터 확보한 문화적 정체성을, 근대 발전론적 주체가 갖는 재산권으로 전유하는 담론전략을 보인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발전론적 주체가, 문화적 권리를 근거로, 부재하는 국가의 주권적 정당성을 상상해내는 표상의 정치학을 동전의 양면으로 함께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 권리(재산권과 주권)의 근거는 ‘제국의 근대지·보편의 학지’를, 자신의 문화적 정당성과 자본주의적 소유권으로 해석해내는 그들의 역동적인 전유(혹은 역전)의 정치학임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런 식민지 근대 주체의 지구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역동적인 전유의 정치학, 단절과 전환의 담론전략은, 동시에 미시적 차원 혹은 내부적 차원에서 또다른 정치학이 관찰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특집은, 다수의 피식민 후발근대 국가들이 아닌, 식민지 조선이라는 개별태에서 1925, 1928년이라는 시기와 상황, 그리고 이 기획을 주도한 개벽사 및 부르주아 민족주의 지식인 필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담론 텍스트 외부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 조선의 자랑 기획의 위치와 의미를 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분열의 가시화와 통합표상의 창안

‘조선의 자랑’이 기획된 첫 번째 1925년은 어떤 시기인가? 이것을 기획한 개벽

사(천도교그룹)와 동아일보는 실력양성운동을 펼치운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기존까지 독립을 예기하는 방식은, 국외의 무장독립운동과는 다른 국제 외교정세나 강대국간의(미국과 일본)의 힘의 역관계 속에서 독립의 기회를 엿보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독립(정치운동)보다는 그것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비정치적 실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1925년은 그 비정치적 실력양성운동의 일환으로 펼친 대표적 운동들이 실패로 결론 난 상태였고, 이 실패가 전해주는 내외적 실체를 미주한 상태였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교적 기대에의 실패,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외부로부터의 배신에 처해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1921년~22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태평양회의의³²⁾ 결과와 여파의 문제이다. 1차대전 후 변화된 세계정치 특히 미·일간의 역관계 속에서 미국의 외교적 도움을 통해 독립의 가능성을 모색하던 노력이 실패로 결론난 상태인 것이다. 미국에 의해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지위가 재차 확인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에서, 이시기 1922년~23년 이후는 국내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로서는 참담하고 창피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한 1920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관세철폐와, 1910년 제정공표되었다가 역시 1920년 개정·폐지된 '회사령'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대체되었다. 요컨대 일본자본과 일본산 소비상품의 대거 유입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었다. 막 발흥하기 시작한 국내 토착 자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본에 호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잘 알려진 '물산장려운동' 등을 통해, 대중의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았던 것이다.

이 상황은 식민지 부르주아가 정치적으로 기대를 걸었던 미국이나, 경제적 관용을 기대했던 지배자 일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와 동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달라지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균형건조 경쟁'이 벌어지면서 군비 제한을 위한 국제회의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미국의 제안에 영국 등 9개국 이 참여, 해군군비 축소 및 태평양지역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 6일까지 3개월 간 워싱턴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이승만·서재필을 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은 미국대표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각종 진정서를 전달하는 등 회의에 참석·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한국인들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한국독립문제는 제기조차 되지 못했다. 애초에, 1차 대전 후 승전국들 간의 이권재조정 문제로 열린 국제회의였고, 오히려 워싱턴회의로 한국의 식민지적 지위는 미국에 의해 재차 승인되었을 뿐이다.

이 상황에서 식민지 부르주아에게 ‘믿을 건 우리 조선밖에 없다’는 테마는 이념적이거나 슬로건적인 의미이기도하지만 동시에 생존의 차원에서 물리적으로 절박한 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외부 타자의 기능적 위상변경, 즉 기존까지 문명적 권위를 갖던 서구라는 타자에 대한 시선의 역전에는, 1차대전 이후 문명비판 속에 나온 사회진화론과의 결별과, 민족자결주의라는 세계적 사상사적 전환과 더불어, 이시기 미시적 차원에서 외부로부터 배신당하는 이들의 상황도 함께 기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국품평쟁론기』에서 서구 여러 나라들에 대한 원색적인 공격과 극단적 상대주의의 대중적 감정은, 생존의 현실 앞에서 육성으로 제기된 외부에의 위상변경을 추측하게 해준다.

이런 외부적 상황 외에,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에게 닥친 또 하나의 실체는 내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이 시기, 외부의 배신 앞에 ‘우리에게는 조선밖에 없다’라는 차원은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생존의 조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개한 이들의 대응은 잘 알려진대로, 실력양성이라는 비정치적 운동이었다. 비정치적이지만 “조선상품 및 기업의 보호와 육성 및 대학설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실패한 것이다. 이 실패를 통해 어떤 진실 앞에 직면했는가? 첫째, 실패를 통해 확인된 것은 민립대학운동에서 보듯, 돈있는 사람들이 기대만큼 모금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물산장려운동의 과정에서 대중들의 배신, 즉 이 운동이 계급적으로 자본가들의 이익에만 기여한다는, 막 등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자들과 대중들의 공격 및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앞에 대표성과 지도력을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담론적 헤게모니 차원과 별도로, 더 심각한 것은 실제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불특정 대중소비자로부터의 배신이 있다.

결국 ‘우리’라고 막연히 상정한 ‘조선’은, 돈 많은 부자들, 막 형성되기 시작한 도시 경성의 하층민, 중간층 소비자 혹은 지식인 계층—학생, 인테리, 청년, 신여성 등 소수의 문화 주도층—, 그리고 청년회와 강습소등을 통한 교육보급과 민풍개선으로 창출된 하층민 민중 등 다양한 차원으로 분열되어있었던 것이다. 그 분열된 각각은 앞서본 실력양성 운동의 실패에서 보이듯 각각의 이해관계를 달리고, 더 나아가 막 등장한 사회주의자들의 담론과 실천적 헤게모니 속에서, 노동쟁의 소작쟁의 과정을 통해, 부르주아 지식인들을 향해 우리편이 아니라고 분명한

자각과 선국기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요컨대 이 운동의 과정을 통해 이들이 상정한 ‘우리’ ‘조선’이라는 게, 계급적 이해타산, 설득기제로서의 정치이념을 통한 헤게모니의 유동성³³⁾, 그리고 값싸고 화려한 소비상품과 근대 도시문화의 매혹 앞에서, ‘우리 조선’이란 이슬처럼 사라지는 아무 실체도 없는 것임을, 그때까지의 ‘우리 조선인’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고 알팍하며 이질적인 것들의 임시적인 집합인지를 매우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로빈슨의 말대로 “식민통치가 시작된 첫 10년 동안에는 민족을 위한다고 말하면 자동적으로 고상하고 애국적인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1924년에는 자신을 그런 가치 아래 포함시키겠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정치적 충성심을 의심받지 않게 된다고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³⁴⁾

1925년 첫번째 『개벽』조선의 자랑 특집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개벽사의 이 기획은 우리, 조선이라는 공통적인 어떤 것이, 그 비실체성을 명백히 확인시키는 바로 그 지점에서 표상(허상, 이미지, 사물성, 대중적 세속적 공감, 학술이론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즉 현실을 반영한, 혹은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한 조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조선의 자명성이 의심스러워지는 현실 앞에서그들 부르주아들에게 ‘문화와 자부심의 근원으로서의 우리 조선’이 필요했고 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자치론과 조선의 자랑의 기획

위에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지식인들이 내몰린 상황과 그들이 만든 표상을 병치함으로써 ‘조선’의 배신 앞에서 ‘조선’의 표상을 만들었다는 아이러니컬한 창안의 지점을 논했다. 그렇다면 이런 ‘표상의 기획’을 통해 그들이 ‘정치적으로 기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33) 이는 곧 미래 비전을 다르게 꿈꾸는 실체, 하층 노동자 계급과 마주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의 자랑’이 견지한 미래 비전 및 그것을 과거로부터의 연속성 속에 위치시키는 전략과 대비시켜 읽어야만 하는 지점이다. 앞에서 역사이야기를 통해 살핀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연속체로서 조선을 표상’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주권적 정당성’을 당위화하는 전략이지만, 한편으로는 당대 정치적 계급적 판도에서 분명한 보수적 선국기를 수행하는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34) 마이클 로빈슨,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나남, 1990), 229면.

이 기획이 만들어진 시기 즉, 1925년(『개벽』 첫 번째 기획)은 자치론이 처음 접화된 직후이고, 1928년(『별건곤』 두 번째 종합적 기획)은 최린이 천도교 교령으로 취임한 해이자 두 번째 자치론이 재접화된 직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치론에 대한 반대 및 제 운동세력의 통일전선을 위해 결집된 신간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신간회 결성과정에서 보듯 조선 사회 담론장에서 통일전선, 연합, 대동단결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되고 현실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했던 시기이다. 한편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이 시기는 1925년 직전부터 등장한 사회주의의 세력, 소작쟁의와 노동쟁의, 조선공산당의 설립과 지하화, 치안유지법 실시 등, 그 어느 때 보다 분열을 목도하며 이전까지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의심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텍스트 외부의 역사적 정치적 문맥에서 볼 때 개벽사의 조선의 자랑기획은 개벽사의 자치론 기획과 철저히 연동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획은 분열이 가시화되고 통합이 시대의 아젠다가 된 시점에서, 한편으로는 식민지 체제 내에서의 자치를 기획하면서, 한편으로는 시대의 아젠다인 통합, 조화, 단결을 ‘담론 표상’으로 선점·기획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앞서 운동들의 귀추를 보자. 관세철폐 및 물산장려운동의 실패와 그 손해는, 결국 동아일보-경성방직-이 총독부로부터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로로 보상받고, ‘우리 내부’의 부자들의 비협력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는 민립대학의 실패는 ‘경성제대 신설안’을 통해 지배자-제국을 통해 해결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결국 국가권력, 정치였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들은 처음으로 ‘정치’의 문제 앞에 마주한다. 그들이 그동안 고집해 온 실력양성은 비정치적 운동을 표방한 것이었다. 비정치의 실패 앞에서, 처음으로 정치의 필요를 제기³⁵⁾한 것이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자치’였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정치)는 쉽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증첩된 것이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일본-외부를 향해서 ‘자기-조선’은 남과 다른 고유성과 자체 내의 문화적 정통성과 질서를 갖는 정체성을

35) “조선의 산업문제는 경제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며, 생활문제 최후의 결전은 정치 문제인 것을 다시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치운동에 대하여 상, 하』, 『동아일보』, 1924.12.26.

증명하고 설득해야하고, 내부의 전체 조선인을 향해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적 결사체의 필요성’을 설득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 정치적 헤게모니상 으로(자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다른 라이벌들과의 경쟁을 통해), 그 정치적 결사체의 대표가 바로 자신들 부르주아 우파임을, 즉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가 곧 조선인 전체의 이해라고 설득해야하는 과제가 영긴 것이었다. 이 자치를 둘러싼 안팎의 문제에 대응하는 1920년대 중후반의 이들의 총결적 대응이 앞서 본 ‘조선의 자랑’의 연표적 장의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925년 『개벽』지 첫 번째 특집이 1차 자치운동의 실패 직후 시도되었다가, 1928년의 『별건곤』 ‘조선의 자랑 특집’은 2차 자치운동 속에서 목적의식적이고 주도면밀하게 기획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중첩된 과제 중 먼저 ‘일본-외부에 대해 조선이 자체 내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갖는 독립된 (문화적)단위체임을 설득하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는 식민지 내 자생적 朝鮮學知의 역사를 갖고 있다.³⁶⁾ 이것을 끌어모아 통합하고 가시화한 것이 이 자랑호 기획들이다. 이 핵심가치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된다. 그리고 ‘내부의 전체 조선인을 향해 조선을 대표하는 정치적 결사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문제는, 1차 자치론 제기 시기인 1924년 이광수의『민족적 경륜』사설³⁷⁾에 대해 일본유학생들이 동아일보 불매운동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대중의 비난을 받은 데서 보듯 담론적 헤게모니의 부재를 확인한 바 있다. 두 번째 ‘자랑호’ 『별건곤』(1928년)은 달라진 외부 상황에서, 내부의 전체 조선인을 향해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가 곧 조선인 전체의 이해임을 설득하면서 ‘통합의 표상’을 선점, 소유권 등기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25~1928년의 경우, 자치라는 과제 앞에 부르주아민족주의 우파는 첫째, 외부 일본의 승인과 가능성 둘째, 사회주의, 민족주의 좌우파의 와중에서 담론적 우위를 획득해야하는 문제 셋째, 실제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혹은 의

36) 1900년대 국수론 및 1910년대 이후 특히 1920년대 들어 성과를 낸 안확, 문일평, 최남선, 이운재, 이병기 등 국어운동, 조선학연구 등이 있다. 이런 개별적 연구들과 함께 그것이 비정치적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방향성 속에서 일찍부터 저변화되어온 설득기제가 있었다.

37) 이광수는 동아일보에 19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5회에 걸쳐 ‘민족적 경륜’이란 사설을 썼는데 “조선 내에서 허(許)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일본의 식민 지배 내에서 자치권을 획득하자는 주장이었고, 이는 동아일보의 김성수·송진우, 그리고 천도교 신파의 최린같은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회 결성을 대비한, 투표권을 가진(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들을 조직화, 동원, 설득하는 문제³⁸⁾라는 3가지 층위가 있다.

첫째 외부적 가능성으로서 이 자치론 제기의 직접적 배경으로는, 1922년 에이레가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에이레 자유국을 성립시킨 것이나 인도에서 간디의 운동 사례를 본 것과 함께, 1925년 치안유지법의 실시로 인해 담론 체계모니상 상대편인 사회주의 운동의 지하화, 1925년 일본에서 실시가 확정된 보통선거법이 구체적인 배경이었다. 특히 일본에서 실시하기로 한 보통선거라는 대정기 데모크라시의 성과물은, 정치를 투쟁이나 독립이 아닌, 근대적 의회를 기초로 하는 대중정당정치라는 체제내적 통치의 구성요소로서 자신들을 입각화하는데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리고 이는 일본내 ‘자치론자들의 유혹’³⁹⁾에서 보이듯 성숙 가능성이 증가한 상태였다.

그리고 둘째 라이벌 정치세력과의 헤게모니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 즉 反조선, 反민족으로 보일 수 있는 아젠다’를 숨기는 방식, 아젠다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시도했다. 그것이 ‘1928년 별건곤 자랑호’로 대표된다. 즉 목표는 자치이지만 의제를 조선의 대표, 조선의 전체, 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로 설정함으로써, 조선통합의 ‘표상’ 표상을 선점하고 대중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26~27년경 ‘조선의 통합적 결사체의 필요성’이라는 아젠다 하에 그 수준을 독립을 위해 중국과 같은 국공합작을 모델로 한 단일당 건설에 두느냐(신간회), 아니면 일본 권력하의 ‘자치’에 두느냐의 문제, 그에 따른 대표성 경쟁에서 신간회 및 여기에 참여한 사회운동 세력이 청년단체 조직이라는 현실정치적 방식으로 진행했다면,⁴⁰⁾ 이들 개벽사 및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 지식인들은, 조직, 운동이라는 현실정치적 방식이 아닌, 대중잡지 미디어에서 ‘조선의 자랑’이라는 거대한 통합표상을 기획한 것이다. 요컨대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는 당시 1927년 28년의 시점에서, 부재하는 조직, 부재하는 담론적 헤게모니, 그리고 부재하는

38) 이 마지막 3번 지방조직화의 과제는 개벽사의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된다. 조선문화 기본조사, 팔도 자랑 담론, 『별건곤』의 5대도시, 지방색 담론 등 별도의 기획들과 ‘조선농민’을 통해 접근되어야한다. 본고는 통합의 표상에 집중해서 이를 다루지는 않았다.

39) 일본인 자치론자들은 1926년 1월 일본에서 중앙조선협회 결성했다. 자치론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고 신간회 입장을 대변했던 조선일보에 이에대한 반대 사실이 실린 바 있다. 『통치군의 유혹-중앙조선협회의 성립을 듣고』, 『조선일보』, 1926년, 2월 6일.

40) 신간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균영, 『신간회연구』(역사비평사, 1993) 참조.

리더십 속에서, ‘조선이라는 표상의 통합’을 창안하고 있다. 이는 ‘우리는 누구인가?’로 묶여질 정체성 정치, 즉 조선의 단합이라는 아젠다하에서, 조직적 주체, 리더십, 담론적 정당성을 통해 구현되어야하는 정치적 주체성을, 표상적 주체성(주체의 표상)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치를 향한 은밀하고도 분명한 담론기획 속에서, 왜 그들 부르주아가 조선의 대표가 되어야하는지는 2장에서 언표의 내부, 담론적 장에서 살핀 방식으로 설득된다. 특히 이런 담론 전략을 통해 조선에 부여된 ‘과거와 미래의 시간적 연속체로서 조선’, ‘유구한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통합표상은, 외부적으로는 주권적 당위를 요청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계급적 보수주의를 구획하는 양날을 갖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특집은 역사적 정통성을 통해 정당화된 문화적 권리와 ‘진정한 조선적인 것의 대표자’를 연동시키려는 기획, 조선 특산물로서의 재산목록과 문화적 주권을 통해 미래(정치적) 주권을 한정표상하는 담론의 정치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 식민지 근대 부르주아의 표상의 정치

결국 자치론과 『별건곤』 ‘조선의 자랑호’를 병치하며 따라간 줄기는, 개벽사가 “대동, 통합, 연합, 통일전선”이라는 당대 처음 마주한 통합적 정치적 주체구성이라는 과제를, 다른 라이벌들이—민족주의 좌파, 사회주의, 비타협 민족주의—조직결성, 운동, 헤게모니의 관철 등등의 방식으로 대응하며 우세를 점하고 있을 때, 대중잡지 인쇄 미디어를 통해, 통합의 표상(이미지와 구체성/허상과 실체)기획으로 전환하고, 그림으로써 조선표상을 선점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현실적 조직적 통합이 요청되는 대세 앞에서, 은밀하게 자치를 기획하면서, 대중적 동의를 획득할 수 없는 그 자치의 의제를 ‘통합된 조선의 표상’을 제공하는 표상의 정치학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이 표상의 정치학은 서구와 등가로 비교되어 ‘외국인의 눈으로도’ 긍정되는 ‘문화적 고유성’의 권리를 통해 ‘독립’으로 독해될 길을 열어놓지만, 그러나 제국내 자치의 수준 내에서도. 또한 사회주의적 헤게모니를 배제하면서 부르주아적이

고 보수주의적인 방식으로 설득된다. 그리고 분명히 (일본)제국의 '체제 내'에서이지만, 바로 그 '문화적 고유성'에 기대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현현된다. 실제적 조직적 '통합과 대표성'을 둘러싼 경쟁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조선학 성과들을 망라해 필자로 수렴하고, 거기에 구체적 이미지, 구체적 물건, 구체적 경험을 담론적으로 소환하며, 감성적인 '우리의 울타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당을 결성하고, 몇 번이나 깨지고 다시 만들어지며 존재를 확립한 조선공산당과, 민족단일당을 향해 돌진하자고 하는 신간회, 이 속에서 그런 당, 결사체라는 현실정치적 조직이 아닌, 표상의 우리, 표상의 조선을 기획하는 방식인 것이다. 함께 묶일 수 없는 우리를 확인하는 순간에, 함께 묶여 있는 우리의 표상(가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시기에 이들은 조선의 문화적 고유성과 문화적 독립성, 그리고 당대 그 시점에서 조선인이 가진 재산목록, 그리고 그 재산의 진정한 소유주로서 최고의 품성으로 총명함, 우수한 학교성적, 포용적이고 너그러운 자질(세속적 합리주의, 자본주의적 정신)를 들고 있다. 이 총명함의 가치(과학, 합리, 성적, 경쟁적 개인)는 통합의 아젠다에 어떤 계급의 사람이 이 통합의 대표가 되어야하는 지를 말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묶어내야 하고, 묶을 수 있다고 승인하는 우리의 경계, 발언권을 줄 수 있는 내부 다양성의 경계는 요리집, 권번, 화신 백화점, 자동차로 대표되는 도시 중간층 소비계층인 것이다. 기존까지, 그리고 그 당시 내내 '조선인'으로 호명되며 계몽의 대상, 설득의 대상으로 존재하던 농민·노동자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대표는 총명하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분열을 획책하지 않아야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우파여야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처음 마주한 '정치'라는 문제적 국면을, '그들만의 정치'의 방식으로, 즉 보통선거와 근대정당정치를 모델로 한 치안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제국)의 통치성 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아이러니한 가면의 통합, 통합된 가면이라는 위장의 정치학을 연출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제국적 치안의 방식 내에서 통치성의 방식이 갖는 근대 부르주아적 대중정치의 정치공학적 특징을 미리 보여 주는 기이한 장면은 아닐까?

그 정치공학적 특징이란 오히려 지금 현재 익숙한, 통합의 주체와 정통성을 과거로부터 구현하기, 계급적 이익을 보편의 언어로 담론화하기, 우리 편을 호명하

고 배제의 대상을 은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구현하기, 그리고 이 모두를 ‘국가’ (민족)으로 경계짓고 충성을 확인하는 주체가 되기인 것이다.

■ 참고문헌

〈기본자료〉

- 『개벽』, 『별건곤』, 『어린이』.

〈참고자료〉

1. 書冊

김택현,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출판사, 2003.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 -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景仁文化社, 2010.

_____, 『한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이지원,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도서출판 해안, 2007.

임경석·차혜영 외,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한국사회사학회, 『설화와 의식의 사회사』, (주)문학과 지성사, 1995.

2. 譯書

로절린드 C. 모리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파르타 차테르지, 리투 비를라, 드루실라 코넬, 태혜숙 역,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서발턴 개념의 역사에 관한 성찰들』, 그린비, 2013.

마크 포스터, 조지형 역, 『포스트모던시대의 새로운 문화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미셸 푸코, 이정우 역, 『담론의 질서』, 도서출판 새길, 1993.

_____, 『지식의 고고학』, 민음사, 1992.

아르준 아파두라이, 차원현 외 역, 『고삐 풀린 현대성』, 현실문화연구, 2004.

프라센지트 두아라,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출판, 2008.

M. 로빈슨, 김민환 역, 『일제하 문화적 민족주의』, 도서출판 나남, 1990.

3. 論文

家永祐子, 『『개벽』과 『별건곤』을 통해 본 한국인의 한국자랑』, 『인문과학연구』, 2012.

김혜숙, 『이미마루 도모[今村鞆]의 朝鮮風俗 연구와 在朝日本人』,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6, 75~122면.

남근우, 『손진태의 민족문화론과 민선사학』, 『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212~253면.

류시현, 『1920~30년대 문일평의 민족사와 문화사의 서술』, 『민족문화연구』 52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35~67면.

류준필, 『한국문학연구의 문화론적 전통과 이념』, 『고전문학연구』, 第8號 別集,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3~84면.

이경돈, 『1920년대 근대미디어의 민족인식과 문학의 조건』, 대동문화연구.

- 이선이 · 이준태, 『근대 초 조선민족성 담론의 형성 배경과 논의 방식』, 『Comparative Korean Studies』 제18권, 국제비교한국학회, 2010.
- 이재원, 『단군신화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Ⅳ) -민속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敎養敎育 論文集』 제4호, 한국체육대학교, 1999, 85~100면.
- 李涼斗, 『안학의 『조선문학사』와 『조선문명사』 비교연구』, 『大東文化研究』 제7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283~313면.
- 조규태, 『1920년대 천도교인 朴達成의 사회·종교관과 문화운동』, 『동학학보』 제22호, 동학학회, 2011, 7~44면.
- 차혜영, 『‘학교’에서 ‘시장’으로의 전환(1) - 1920년대 중반 『개벽』의 ‘조선의 자랑’을 통해 본 식민지 근대의 내적 전환 연구 -』, 『한국언어문화』 36, 2008.8.

[부록]

別乾坤 조선의 자랑호 전체목차

번호	소분류	기사제목	작가
1	자랑호 넣으시는 분에게(社告)	조선자랑호	편집국
2	조선역사상 삼대전첩	백만수군을 일거 전멸한 을지공의 살수대첩	문일평
3		일편고성으로 삼십만당병을 격퇴한 양장군의 안시대첩	차상찬
4		맹산, 서해, 만고정충의 결정, 이충무공의 한산대첩(전문삭제)	신형철
5	조선역사에 가장광휘잇는페-지	문덕무공을 크게 빛내인 고구려의 영양왕시대	일평
6		고구려의 무위가 발양된 곳	김도태
7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반포	이병기
8		세종성대의 문화	이윤재
9		조선이가 잘 발양된 페-지(전문삭제)	최남선
10		박연압의 사상(전문삭제)	강매
11		檀君及其研究(전문삭제)	최남선
12		조선시조단군연구	
13	동양천지를 호령하든 조선해군		일기자
14	국제적으로 알려진 조선인물		수춘학인
15	조선의 여행부덕, 대표적 閻閣偉人		홍승기
16	학술자랑	조선심 차진 조선문학	문일평
17		묵어도 가치 높은 과문시부	리광종
18	발명자랑	문자중의 패왕 한글	신명균
19		현대문명의 산모, 활자의 발명은 조선이 수위	이윤재
20	종교자랑	천도교와 조선	김기전
21		불교와 조선문화	이능화
22	미술자랑	조선의 미술자랑	홍순혁
23		현대 공예보다도 탁월한 고려시대의 도자기	최진순
24		세계적으로 자랑할 조선의 13대 화가	고의동
25		과거 조선미술의 단편(자랑거리 한 두 개)	어덕
26		세계절품 대원각사비와 솔도파	고고생
27	음악자랑	세계인이 흠탄하는 조선의 아악	안자산
28		조선 고악의 변천과 력대 악단의 명인물	풍류랑

29	자랑하고심혼 것 늘자랑하는것	내가 자랑하고 심혼 조선것	권덕규 외
30		우리들의 문자	박팔양
31		덕성과 제주	박보희
32		건강과 총명	안재홍
33		인물과 산수	장응진
34		민족적도덕성	박희도
35		나는 천도교를(삭제)	정광조
36		세계평화의 선구자	한기악
37		특히 애정이 풍부	박동완
38		가족제도는세계일	최성우
39		우리의2대특성	서세충
40		세가지 자랑	강상보
41		특별한 천연의 은사	국기열
42		칠십년전에 단신조사, 독립 제한 고산자의 대동여지도	육당학인
43	외국인과싸와의익인이약이	외국인을 경도케 한 강악원씨의 권투전	손발
44		세계에 부끄럽지 않을 조선의 풋볼경기	김원태
45		미국에서 찬양받는 『聖푸리티』, 조선수재 변홍규군	방인근
46		대동강상에서 미함을 소파하던 최란헌 사건의 전말	翠雲生
47	반만년종으로 본 조선의 자랑	차돌이	
48	삼천리횡으로 본 조선의 자랑	박돌이	
49	외국인이 본 조선의 자랑점	단군의 청렴과 기개	한, 푸름
50		산천기후의복	째루만
51		첫제안녕하고	마리부인
52		동방의 고문화는	호홍명
53		내가 조선 찾기는	헤나쉬
54	세계에 비가 엮는 개암이 전설 - 세계에 류업는 조선전설(전설자랑)	손진태	
55	둘도 없는 寶物, 특색있는 藝術 - 조선은 메나리나라(민요자랑)	홍사용	
56	우리의 산수미(산수자랑) - 세계명승을 주유하고 와서	박석윤	
57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조선산의 화초와 동물(화초동물자랑)	김동혁	
58	천하영약 고려인삼(특산자랑)	삼신산인	
59	만국품평회 대쟁론기	관상자	
60	조선온돌예찬(주택자랑)	손진태	
61	조선여자복예찬(의복자랑)	류광열	
62	조선김치예찬(음식자랑)	류춘섭	
63	조선요리의 특색(요리자랑)	안순환	
64	갯자라나는 조선영화의 자랑	심훈	

65	요모조모로 본 조선사람과 외국사람	동경여관에서 본 조선유학생	소전기요
66		자동차안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박일동
67		기차중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김○홍
68		상점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박월선
69		화류계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이○홍
70		요리점에서 본 조선손님과 외국손님	김덕성
71	조선여자의미-사진		
72			
73			
74	외국가서 생각하는 조선 것	음식, 산수, 인정	박승철
75		고국의 한울 기타	신형숙
		오직 명량한 기후	
76			최두선
77		날마다 일요평화의 상징	이성용
78		사람으로의 조선 음악으로서의 조선	박석윤
79		암반해도 못 잊는 것	정석태
80		꿈속에서 그림튼 조선 산천	어운홍
81		조선어와 조선복	김우평
82		잊치지 안튼 기후와 김치	김준연
83		의식주 그리고 산천	유경
84		조선의 달과 꽃, 음식으로는 김치, 갈비, 냉면도	이정섭
85		온돌과 김치	류영준
86	동서무비 조선인정 미담집	만고정녀 설씨부인, 넷 한머니의 거룩한 행적	김소춘
87		병자호란 때 니러난 향촌의 조그만 사실, 효렬미담 아산가상의 일사체	효산
88		남편 위하야 호랑이 잡고 순사한 산증가인	야뢰
89		규중처녀로 남자의 생명을 구호, 보씨흙의 기록	정수일
90		도적의 화염에 일시소사 약혼남녀의 최후	이성환
92		신부 맞귀인 소설가튼 사실담, 조선은 인정의 나라	최득건
93		화피복호의 박과부	춘과
94	특별현상개벽사마 크도안모집		

Politics of representation of colonial modern bourgeois, ‘The Edition of Chosun’s Pride’ in 『Byeolgeongon』

Cha, Hye-Young*

The 94 articles from ‘The Edition of Chosun’s Pride’ published in 1928 in 『Byeolgeongon』 have been dealt with by interpreting our real boundary through the issues: 1. Who we are (historical legitimacy and cultural uniqueness), 2. We have the right (right to equality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s), 3. What it is that we have (claim of ownership according to the right), and 4. Who our representative is.

This allowed us to examine the other points, which are different from a way of thinking of putting ‘oneself’ at the edge of timetable of the world development through catching up with the time of the civilization or social darwinism before the First World War, or from the Dangun, locality, feminine imaginary of comparing ‘oneself’ to non-utility, non-capitalist, and non-modern mental symbols after in the 1930s.

The ‘Joseon-we in common’ stressed out in those articles shows us a discourse strategy of comforting oneself in the time progressing and the time in the future, i.e. into the development theory continuum to the past-present-future, and of appropriating the cultural identity given from the past with the property owned by the subject of the modern development theory. At the same time, the subject of the development theory has the face and back of a coin. In other words, it is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of imaging the sovereign legitimacy of a nation

*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ethnic), which is absent on the ground of cultural rights. For the ground of such rights(property right and sovereignty), their dynamic appropriation of politics have been examined, which interpret ‘imperial modern knowledge’ and ‘universal academic knowledge’ as their cultural legitimacy and capitalistic ownership.

However, this strategy of severance and transition of the dynamic locutionary coordinate allowed us to find out that another politics in specific historical circumstances is realized, which is the plan of bourgeois nationalist media of colonial Korea from 1925 to 1928. The period was over the time shortly after the self-government theory was ignited first in 1925 and secondly in 1928. It was the time when the topic of the united front, coalition, and mass-unity was raised in the Joseon social discourse. The analysis of the ‘self-government’ theory and of ‘The Edition of Chosun’s Pride’ in 『Byeolgeongon』 as well revealed that at the time when the contemporary split was visualized and the integration became the agenda of the times thereof, they were performing 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and the discursive politics to persuade Koreans to regard the cultural uniqueness and independence of Joseon, the list of properties owned by the Koreans at that point of the contemporary, and the character as the real owners of those properties, as the pride of Joseon.

Key Words : The mid-1920s, Byeolgeongon, Chosun’s Pride, self-government , Politics of Representation, Temporal continuum, comparison and equality, property list made in Chosun